

네오위즈의 사회공헌 활동

나눔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숲을 이루는 기업

“지금까지 1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은 옆과 뒤를 돌아보는 해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창업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사 창립 10주년과 함께 사회공헌 원년을 공식 선포한 것입니다”



상사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며 ‘착한기업이 성공한다’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네오위즈(대표 나성균, www.neowiz.com).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네오위즈는 2008년을 사회공헌 원년으로 선포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로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그 시작으로 네오위즈는 올해 초, 나눔을 실천하고 모든 이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을 다짐하며 사회공헌 사이트 ‘마법나무’ (magictree.neowiz.com)를 오픈, 따뜻한 사랑실천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사회공헌 사이트 ‘마법나무’는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나무’가 세상을 바꾸는 ‘마법’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오위즈의 사회공헌 목표를 담고 있기도 하다.

■ 나눔이 가치를 뽐고 꽃을 피우는 네오위즈의 마법나무

‘마법나무’는 사회공헌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와 참여의 공간으로 이뤄져있다. 고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이웃사연’ 코너는 꿈, 희망, 행복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고객들이 올려진 사연을 보고 클릭을 하거나 응원의 글을 남기기만 해도 네오위즈가 그 정성을 모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여러 곳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직접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고객들의 나눔클릭 정성을 모아 클릭 당 100원씩 네오위즈가 후원금을 마련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72명에게 교복, 가방, 참고서 등 새 학기 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3월에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새생명의 집(원장 유금자)-사랑의 집고치기’ 사연에 모인 고객들의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네오위즈 직원들과 해비타트 서울지회가 함께 도배와 장판 교체, 전기시설 점검, 페인트 칠, 씽크대 교체 등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 사랑의 집고치기 행사에 참여한 네오위즈 직원들은 “종일 자원봉사로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정신은 한없이 맑아졌다”며 입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마법나무에서는 네오위즈가 추구하는 사회공헌 철학과 지난 활동들이 게시되어 네오위즈가 현재 펼치고 있고 또한 앞으로 펼쳐나갈 사회공헌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 고객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진실한 사회공헌 실천

네오위즈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네오위즈 고객들의 활발한 참여는 큰 힘을 실어주었다. 2003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국내 최초의 ‘온라인 1호점, 세이클럽 아름다운가게’를 열었을 때는, 세이클럽 고객들이 기계이 현웃 아이템을 행사 기금으로 내놓았다. 2005년부터는 해마다 겨울이면 피망 및 세이클럽 회원들과 함께 연탄 아이টে를 판매한 수익으로 서울 중계본동에 35만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네오위즈는 ‘마법나무’를 중심으로 고객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부지런히 발굴할 예정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오위즈의 따뜻한 사랑이 기대된다.

